

1 5월은 성모성월이에요. 성모님께서 알려주신 묵주기도의 신비를 적어보세요.

- ①
- ②
- ③

2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두 단어가 있어요. 반복된 단어를 찾아보세요!

3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간다고 말씀하셨나요?

- ① 평화    ② 기쁨    ③ 인내    ④ 약속

※생각해보세요.

성당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하나요?

성당 → \_\_\_\_\_

교리시간 → \_\_\_\_\_

미사시간 → \_\_\_\_\_

예수님이 보시기에 예쁜 나의 모습은 무엇일까요?

성당 → \_\_\_\_\_

교리시간 → \_\_\_\_\_

미사시간 → \_\_\_\_\_

정답은 5월 31일(금) 까지 우편(주보하단참조)으로 보내주세요.



†. 찬미예수님.  
안녕하세요 우리 친구 여러분!~  
저는 성내동 성당에 보좌 신부로 있는 **장형주 요한세례자** 신부입니다.

특히 부활 제 6주일이자, 청소년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축하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.

우리 친구들은 교회의 미래이자 친구 한 명, 한 명이 많은 잠재력을 지닌 아주 큰 원석이라고 말이에요. 그리고,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들이 그 어떤 작품보다 아름다운 예술작품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.

신부님도 우리 친구들과 같이 어린 시절을 잠시 떠올려보면, 괜히 쉬고 싶을때도 있고, 가끔은 성당에 왜 나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지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.

그런데, 신학생 때 어느 한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, 우리 친구들의 어려움이 더 크게 다가왔어요.

“학사님, 저는 평일에 학교가 끝나면, 학원을 가고 집에 돌아오면 밤 10시가 돼요. 토요일에도 저녁 전까지 학원에서 공부만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, 성당에 미사를 오는게 너무 힘들어요....”

맞아요. 우리 친구들이 성당에 오기 힘들 때도 있고, 평일에 열심히 지냈던 만큼 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.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.

**“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.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,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.”**

우리 친구들이 어느 순간에서든, 여러분이 사랑하는 **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**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의 **모든 순간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**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의 모든 순간이 그 어떤 보석의 원석보다도 아름답고, 그 누구보다도 사랑받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서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신부님도 함께 기도할게요.

부활 제 6주일  
(청소년 주일)

“나는 너희에게  
평화를 남기고 간다.  
내 평화를  
너희에게 준다.”

(요한 14, 27)




성당

학년

이름

성명

1독서  **여행**

✦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. 15,1-2.22-29

그 무렵 <sup>1</sup> 유다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, “모세의 관습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.” 하고 형제들을 가르쳤다. <sup>2</sup> 그리하여 바오로와 바르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분쟁과 논란이 일어나, 그 문제 때문에 바오로와 바르나바와 신자들 가운데 다른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원로들에게 올라가기로 하였다. <sup>22</sup> 그때에 사도들과 원로들은 온 교회와 더불어, 자기들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뽑아 바오로와 바르나바와 함께 안티오키아에 보내기로 결정하였다. 뽑힌 사람들은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인 바르사빠스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스였다. <sup>23</sup> 그들 편에 이러한 편지를 보냈다. “여러분의 형제인 사도들과 원로들이 안티오키아와 시리아와 킬리키아에 있는 다른 민족 출신 형제들에게 인사합니다. <sup>24</sup>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 우리에게서 지시를 받지 않고 여러분에게 가서, 여러 가지 말로 여러분을 놀라게 하고 정신을 어지럽게 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. <sup>25</sup>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뽑아 우리가 사랑하는 바르나바와 바오로와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뜻을 모아 결정하였습니다. <sup>26</sup> 바르나바와 바오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. <sup>27</sup> 우리는 또 유다와 실라스를 보냅니다. 이들이 이 글의 내용을 말로도 전할 것입니다. <sup>28</sup> 성령과 우리는 다음의 몇 가지 필수 사항 외에는 여러분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. <sup>29</sup> 곧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과 피와 목 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불륜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. 여러분이 이것들만 삼가면 올바르게 사는 것입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©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2독서  **여행**

✦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. 21,10-14.22-23

<sup>10</sup> 천사는 성령께 사로잡힌 나를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는, 하늘로부터 하느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 주었습니다. <sup>11</sup> 그 도성은 하느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. 그 광채는 매우 값진 보석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. <sup>12</sup>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과 열두 성문이 있었습니다. 그 열두 성문에는 열두 천사가 지키고 있는데, 이스라엘 자손들의 열두 지파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. <sup>13</sup> 동쪽에 성문이 셋, 북쪽에 성문이 셋, 남쪽에 성문이 셋, 서쪽에 성문이 셋 있었습니다. <sup>14</sup> 그 도성의 성벽에는 열두 초석이 있는데, 그 위에는 어린양의 열두 사도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. <sup>22</sup> 나는 그곳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습니다. 전능하신 주 하느님과 어린양이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. <sup>23</sup> 그 도성은 해도 달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. 하느님의 영광이 그곳에 빛이 되어 주시고 어린양이 그곳의 등불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.


주님의 말씀입니다. ©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복음  **여행**

✦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14,23-29

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. <sup>23</sup> “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.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,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. <sup>24</sup>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.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. <sup>25</sup>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것들을 이야기하였다. <sup>26</sup> 보호자,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. <sup>27</sup>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.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.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.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,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. <sup>28</sup> ‘나는 갔다가 너희에게 돌아온다.’고 한 내 말을 너희는 들었다.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.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. <sup>29</sup> 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.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©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 오마리아수녀의  
주일 복음 그림  
- 바오로딸쿤텐츠

